

학생 신앙운동 (S.F.C)의 교과과정연구

진병백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약 100여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산하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 하심으로 한국교회에 팔복할만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한국교회의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원선교단체들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수 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교육적인 공동체이며, 선교적인 공동체이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 이 세 가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교회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성경교육을 위한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학교이다. 또한 선교를 위한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세시대까지는 수도원으로 드러났고,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는 각 선교단체들의 발생이 그것이다. 또한 각 교단마다 있는 교단선교부가 그것이다. 옛날에는 교회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감당하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각각의 요소마다 전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독립적

인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각 기관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A형태〉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신학교 사이의 상호 협력하는 형태이며, 〈B형태〉는 각 기관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형태이다. 〈B형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음으로 독립적인 특수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간에 갈등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A형태〉는 세 가지 관계 사이의 조화를 이룸으로 이상적인 협력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교회는 신학교를 통하여 신학적인 도움을 입을 수 있으며,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전문영역의 사역에 대한 도움을 입을 수 있다. 신학교도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하여 신학생의 수급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입게 된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선교단체로서의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역교회와 신학교를 통하여 균형잡힌 신학과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통하여 안정된 신앙생활과, 신학적인 도움을 입게 된다. 이러한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B형태〉는 독자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관에 허락하신 특수한 전문 사역들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은 그 전문영역에 따라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이 상호간에 갖고 있는 사역들을 다 감당해야 함으로 운영상의 어려움과 한계에 쉽게 부딪히게 되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의 부족과 재원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에 부딪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지난 세월동안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단체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의 낭비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사역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남기게 되었다.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역교회와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교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학생시절에 선교단체를 통하여 훈련받으며 학교 현장에서 섬기고 있던 상태에서 졸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학교의 현장과 선교단체라는 현장에서 떠나게 되고, 한 사회인으로서의 사회생활과 평범한 한 성도로서의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

었다. 교회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훈련받은 일꾼을 효과적으로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지속적인 도전과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봉사할 수 있는 현장을 잃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긴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된다.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기초와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문적인 사역과 열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함께 상호 협력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실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본 논문은 학원선교단체인 학생신앙운동(S.F.C)이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학생신앙운동이 갖고 있는 교과과정이 타 학원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에 비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학교의 선교현장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신앙운동이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와 신학교가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색하며, 21세기에 있어서 이 세 기관사이의 바람직한 교회모습, 신학교모습, 선교단체 모습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교단의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단체들이 있다. 특별히 선교단체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각각 다른 전문영역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본 논문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그 범위를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학원선교단체로 제한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C.C.C.와 I.V.F.와 S.F.C.를 통하여 이 세 학원선교단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S.F.C.의 역사와 그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S.F.C.의 교과과정을 소개 및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타 학원선교단체인 C.C.C.와 I.V.F.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C.C.C.와 I.V.F.와 S.F.C.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하며, 신학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러한 교과과정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지, 앞으로 한국 교회의 교육적인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신학교가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다.

II. 학생신앙운동의 역사와 현재

1. 학생신앙운동의 역사

학생신앙운동은 S.F.C.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별히 고신교단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교회중심의 학원선교단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생신앙운동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학생신앙운동(Student For Christ)은 약50여년 전에 해방직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기도의 작은 모닥불로 시작하였다. 먼저 학생신앙운동(Student For Christ)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1947년에 '학생신앙협조회'란 이름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1952년에는 '중앙학생신앙협조회', 1953년에는 '전국학생신앙운동'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¹⁾

학생신앙운동(이하S.F.C.라 명명함)의 시작은 한국역사 및 한국 교회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사적으로 보면 1945년의 해방이 있으며, 1950년의 6.25전쟁이 있다. 교회사적으로는 한국교회사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하에서 행했던 신사참배에 대한 해방후의 회개운동과 출옥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의한 한국교회와 신학의 재건운동이 진행되는 때가 있었다. S.F.C.는 이와같이 중요한 시기에 순수한 학생들에 의해 민족의 장래를 위한 작은 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발전하여 학원선교단체로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S.F.C.의 시작을 한국사와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제1단계 배아기(1945.8-1946.9)²⁾

1) 「학생신앙운동ABC」 학생신앙운동 본부, 1996, p.7.

2) 상계서, p.7.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한국사회와 교회에 전환점이 되었다.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방과 함께 일제의 기독교 탄압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민족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우리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해방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격동의 시기를 겪어야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일제식민의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야 했고, 교회적으로는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 결정되었고 시행되었던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신학의 재건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교회의 회개운동에 동참하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결정하거나 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신사참배가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악임을 깨달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여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일단의 학생들은 부산의 제일영도교회(당시 한명동 목사 시무)에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조그마한 기도모임이 오늘날 학생신앙운동의 모체가 된 "모닥불 기도회"이다. 이 모닥불 기도회가 점차 확장되고 발전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조직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2) 형성기(1946.10-1952.6)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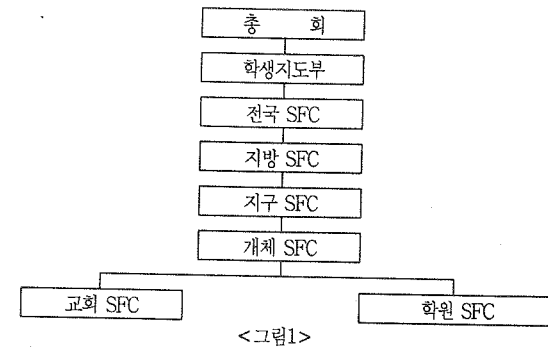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영도에 있었던 한명동 목사의 사택에서 기도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 기도모임이 점차 확대되었고 기도와 삶에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세가지는 학업충실과 복음전도와 교회봉사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도회와 함께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하면서 S.F.C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들의 기도는 자신과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모임의 명칭은 1947년에 '학생신앙협조회', 1952년에 '학생신앙협조회', 1953년에는 '전국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에는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의 전신)가 총회 직영신학교로 있었다. 그러나 신앙적,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과 성령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고 가르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려신학교를 개교했던 것이다. 고려신학교의 개교는 S.F.C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려신학교가 주최한 수양회를 통하여 신앙적 열정이 더욱 고취 되었으며, 전국적인 학생운동, 구체적인 신앙운동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3) 조직기(1952.7-1954)⁴⁾

고려신학교의 수양회를 통하여 점차 전국적인 학생신앙운동으로 확산되어지다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공포와 죽음의 도가니속에서도 고려신학교가 주최하던 수양회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수양회를 통하여 S.F.C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가 주최하던 수양회가 차츰 그 주도권이 부산학생신앙운동에게로 넘어 왔고, 마침내 전국적인 수양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S.F.C는 교회를 배경으로 한 학생운동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고려신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S.F.C는 교단을 배경으로 그 조직이 형성되게 되었다. S.F.C와 고신 교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이처럼 S.F.C가 고신측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에는 한명동 목사, 한부선 선교사, 박운선 목사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앞의 두 분은 학생신앙협조회로, 청년신앙운동으로 그리고 박운선 박사는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로 학생신앙운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고신측이 발회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3) 상계서, p.10.

4) 상계서, p.13.

이다. 이에 S.F.C.는 자연스럽게 고신측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맺어짐은 회개운동과 신학운동을 통한 교회재건운동에 한마음이었던 고신측과 S.F.C.사이의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이 조직이 고신측이라는 한 교단에 자리함으로써 이후 S.F.C.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 안에서 S.F.C.는 진정한 신앙운동으로 자라도록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물질적인 후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4) 성장기(1955-1963. 8)⁵⁾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한 S.F.C.는 그후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것은 고신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세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도위원 위촉청원, 학신주일 설정 건의 그리고 전임사역자(간사) 청빙을 위한 요청이었다.

이렇게하여 "S.F.C. 지도위원"이 구성되게 되었는데 S.F.C. 지도위원은 학생들의 신앙적인 자치활동을 인정하면서 신앙과 신학적인 면에서 선도·교정하여 주며, 자신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들을 주선하여 주었다. 이런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학생신앙운동이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1969년에 "S.F.C. 주일"을 교단산하 모든 교회가 지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971년에 "전임사역자"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여 S.F.C.는 보다 효과적인 학생운동으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신앙운동은 스스로 자기 성장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한 재정적·인적 필요를 총회에 요청했던 것이다. S.F.C.는 고신교단의 배경하에서 재정적·인적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점차 성장하여 왔다.

5) 전환기(1963.9-1971)⁶⁾

1960년 고려측과 승동측의 합동, 1963년의 환원이라는 새로운 격동을 겪게 되는 진통도 있었지만 이 진통을 계기로 S.F.C.는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전임간사제 도입과 학원운동으로의 확장이다. 이는 학생신앙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교단 총회에 의해 S.F.C. 지도위원회가 임명

되었지만 지도위원이 가지는 교회사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전임사역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다.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운동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담사역자의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한 요청은 총회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S.F.C. 자체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배들의 지원으로 유급간사가 세워졌지만, 총회에서 이 간사제에 필요한 총회 교육부의 인준과 총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간사제도가 정착되었다. 전임 간사가 세워짐으로 S.F.C.에는 놀라운 전환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임 간사의 지도에 따라 이제 S.F.C.의 운동도 교회 중심의 운동에서 학원중심의 운동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그 동안 중·고등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던 S.F.C. 운동이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그 사역과 운동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임간사제도의 도입은 S.F.C.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었고 학원, 국가,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6) 확장기(1972-1996)⁷⁾

이제 마지막으로 S.F.C.가 어떻게 더욱 확장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S.F.C.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을 가져 왔던 전임 간사제도와 대학생운동으로의 성장은 1972년 이후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간사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의 각 지방에 지방간사제도가 형성되었고, 각 지방마다 지방간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S.F.C.의 운동은 더욱 성장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평신도 간사들이 헌신하게 되었다. 간사들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S.F.C.의 운동이 더욱 전문화·구체화 되었고, 학원복음화와 S.F.C.운동원들의 신앙지도와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S.F.C.가 더욱 강화되어 짐에 따라 학원복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학원선교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학원S.F.C.운동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연구 모임"이 구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0년대 중반에 "3단계7과정"이라는 <S.F.C. 교과과정>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대학 S.F.C.의 성장과 아울러 "고교 S.F.C."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교 S.F.C."는 처음에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연합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부

5) 상계서, p.17.

6) 상계서, p.19.

7) 상계서, p.22.

산, 대구, 마산, 울산, 김해 등지에서는 그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고등학교에 자발적으로 고교 S.F.C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간사들의 헌신으로 교회 연합운동이 아닌 고등학교 S.F.C. 연합으로 "고교 S.F.C."가 조직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이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히 부산 지역에서는 "고교 S.F.C."가 "대학 S.F.C."와 동등한 S.F.C.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서 "고교 S.F.C."를 위하여 전임간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고교 S.F.C." 운동원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 S.F.C가 가지고 있는 양육프로그램인 <3단계7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인데 <초급과정>,<중급과정1>,<중급과정2>,<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학생신앙운동(S.F.C)의 현재

학생신앙운동은 개혁주의 신앙과 그 전통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S.F.C.는 지금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선교단체로 타 학원선교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별히 S.F.C.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생활의 전통을 유산으로 하고 있는 학생선교단체이다. 현재의 S.F.C.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S.F.C.강령"과 조직과 그 사역을 살펴보아야 한다.

S.F.C.는 오늘날에 와서 다음 네가지 기본 사역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운동과 사역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이 네가지 운동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직 과 문서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S.F.C. 강령

S.F.C.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S.F.C.강령"이다. "S.F.C.강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목표와 사명과 생활원리가 그것이다.

학생신앙운동이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S.F.C. 강령"은 아래 <그림2>에 있는 내용과 같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서 및 대소 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1.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2.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중심
2. 성 경 중심
3. 교 회 중심

<그림2>

① 강령구현의 목표는 개혁신앙인 양성이다.⁸⁾ 양육의 목표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신앙과 생활속에 개혁주의의 정신이 심겨져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3-7과정>이라는 교과과정이 개발되었고, 현재 각 캠퍼스에서 <3-7과정>에 입각한 양육이 실시되고 있다.

② S.F.C.강령이 말하고 있는 첫번째 사명은 복음화이다.⁹⁾ 복음화의 대상은 국가와 학원과 세계이다. S.F.C.가 말하는 복음화는 영혼구원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복음화로서 영혼구원과 문화변혁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3-7과정>은 이 원리에 입각해서 두 지표(영혼구원, 문화변혁) 모두의 달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원 복음화는 대학 캠퍼스만이 아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전개되어지고 있다.

S.F.C.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세계선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는 S.F.C.가 독자적으로 새롭게 선교부를 구성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교 못자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 못자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필리핀, 중국을 거점으로하여 세계 선교에 대한 안목과 필요들을 보게 하며, 현지에서 직접 훈련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세계단기선교훈련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8) 상계서, p.29.

9) 상계서, p.31.

전개하지 않고 중·고등부로도 확장하고 있다.

동시에 S.F.C.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 선배들과 교단 선교사들에 의해 현지 S.F.C.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해외로 확장된 S.F.C.를 국내 S.F.C.와 긴밀한 네트워크로 엮어서 상호 보완적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③ S.F.C.가 말하고 있는 두번째 사명은 교회건설이다.¹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건설이란 구체적으로 지역교회를 말한다. S.F.C.는 사역과 운동의 열매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지역교회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도록 양육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이 교회의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히 감당하게 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개교회 중·고·대학부를 섬기며 말씀위에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섬기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현재 지방 수련회나 신앙강좌 및 찬양 집회, 전국수련회 등을 개설하여 학생차원에서 연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강령 구현을 위한 생활원리가 있다. S.F.C.의 생활원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다.

2) 조 직¹¹⁾

S.F.C.의 조직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데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신 교단에서 파송한 총회 지도위원회가 있고, 간사회, 본부, 지역, 출판부로 나누어진다.

총회 지도위원회는 다시 각 지역의 노회에 따라 각 노회에 소속된 노회지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간사회는 전국에 있는 지역 대표간사들로 구성된 간사회와 전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간사들로 구성된 전국간사회가 있다. 이러한 간사회를 통하여 간사들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F.C.사역의 정책과 중요한 논의들이 결정되어지고 있다. S.F.C.본부는 총무 간사와 기타 몇명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부의 사역은 전국에 있는 S.F.C.의 모든 사역을 총괄하며, 지도하며,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는 <3단계 7과정>에 따른 교재편찬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별히 전국 수련회를 기획하며, 진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S.F.C. 출판부는 S.F.C.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들을 총괄 편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날마다 주님과』, 간사저널, 전국학신보, 교회건설지, 각종 사역서신, 기타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S.F.C.의 역사와 현재의 S.F.C.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F.C.는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시작된 학생자발운동이었으며, 지난 50년의 한국의 역사와 함께 맥을 이어오면서 수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열매 또한 지대하다. S.F.C.를 통하여 훈련받고 배출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말씀위에서 굳게 서 가고 있으며, 각 학원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중생한 영혼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속에서 성장 확장의 단계를 거쳐왔다. 수 백년의 역사를 가진 여러 선교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 명실상부한 학원선교단체로서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있다. S.F.C.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훈련받은 것을 교회와 사회속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사역하여 왔다.

III.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

S.F.C.는 운동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면, 방학중 양육 프로그램과 주중 양육 프로그램이다. 다시 방학중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수련회, 전도학교, 알뜰학교, 해외 단기선교 훈련, 각종 세미나가 있다. 주중에 실시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연합 양육 프로그램과 개체별 양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대학연합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연합 큰 모임과 연합 기도회가 있다. 그리고 개체별 양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큰 모임, 작은모임, 관심별 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운동원이 주님의 균형잡힌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원선교단체로서 S.F.C.가 갖는 특징은 어느 한 프로그램을 통하

10) 상계서, p.32.

11) 상계서, p.33.

여서만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 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S.F.C.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원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러한 여러 양육프로그램 가운데서 특별히 S.F.C.가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S.F.C.가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으로는 <3단계 7과정>의 양육 프로그램이다. <3단계 7과정>이란 S.F.C.의 공식 교과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3단계 7과정>의 제자훈련 양육 과정은 한 사람의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앙운동의 운동원과 알들로 성장하게 하며, 나아가 훈련되고 성장한 알동이 어떻게 영적성장과 재생산을 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식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교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삶에 관한 나름의 철학과 성경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조와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신학의 차이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사이에도 나타난다.¹²⁾ 그런 점에서 S.F.C.의 교과과정은 기존의 학원선교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점이 있다.

먼저 <3단계 7과정>의 기본정신과 운영원리를 살펴보자.

1. 기본정신

<3단계 7과정>의 기본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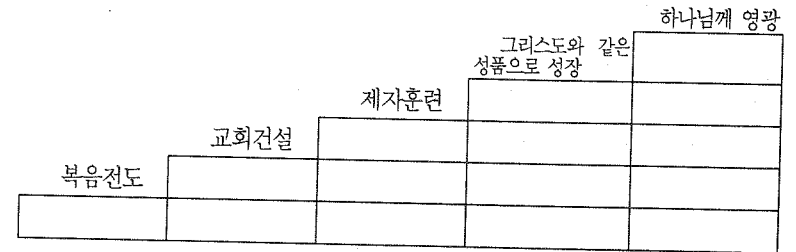
(1) 성경적으로 균형잡힌 개혁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¹³⁾

<3단계 7과정>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훈련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선교단체들의 제자훈련은 재생산이 그 최종 목표인 것을 볼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와같이 S.F.C.가 가지고 있는 <3단계 7과정>은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잡고 있다. <3단계 7과정>은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양육에 목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균형잡힌 그리

스도인이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 양육이 되는 것과 교회건설의 주역으로 양육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훈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3단계 7과정>인 "개혁신앙인 과정"이 다른 선교단체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는 없고 SFC교과과정만 더불어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1단계 1과정부터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의미한다.¹⁴⁾

최근에 S.F.C.에서 선택한 칼 윌슨의 제자훈련 입문서인 『훈련과 성장』은 이런 점에서 S.F.C.의 교과과정의 기본정신과 일치될 보인 귀한 책이다. 윌슨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림3>과 같이 도표화하고 있다.¹⁵⁾



<그림3>

이는 학생신앙운동의 교과과정의 최종 목표가 개혁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S.F.C. 강령을 구현하는 운동원을 양육해 내는 것임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강령은 교회 건설이 S.F.C.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S.F.C.가 채택하고 있는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S.F.C. 운동원의 삶의 궁극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역교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¹⁶⁾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갖고 있는 교과과정은 그 선교단체를 벗어나서는 잘 적

12) 「III-7 교과과정」, 학생신앙운동 본부, 1993.

13) 상계서, p.1.

14) 상계서, p.2.

15) 『훈련과 성장』, 칼 윌슨,

16) 전계서, 학생신앙운동 본부, p.2.

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의 상황과 여건에 의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각 선교단체는 자기들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S.F.C가 가지고 있는 <3단계 7과정>은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훈련과 사역에 관한 SFC의 철학과 관계가 있다. 양육과 훈련에 관한 한 지역교회가 1차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SFC의 특징이다. 초기에 지역교회와 학원 S.F.C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의 분담을 살펴보면, 훈련과 양육은 지교회가 맡고 캠퍼스에서 전도와 복음화를 위한 신앙운동은 지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회 형편과 학원 SFC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S.F.C가 직접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고 교재 편찬 및 복수 교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코 지역 교회의 사역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SFC의 훈련은 2차적인 것이며 지교회의 훈련과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¹⁷⁾

이러한 S.F.C의 <3단계 7과정>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만들어 졌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역시 S.F.C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S.F.C의 교과과정은 단순히 학원 S.F.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한 것이며, 지역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적용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지역교회와 학원 SFC는 현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3) 양육과 운동을 병행한다.

현장에서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제자훈련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활이 없는 지식 추구적인 제자 훈련은 훈련받는 제자로 하여금 기형적인 성장을 낳는다. 머리는 큰데 가슴이 차갑다면 오히려 훈련받는 지식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로 나타나게 된다. 비판과 판단에는 탁월하겠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교회와 사회와 캠퍼스에 만연되어 있는 악한 문화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독교적인 문화를 창출하는데 무능력한 고급인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지난 한국 교회가 1세기 동안 추구해 온 모습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25%나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 정화되기를 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부정과 부패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제자훈련은 기형적인 제자훈련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F.C의 <3단계 7과정>은 양육과 운동을 고루 갖춘 훌륭한 제자훈련 교과과정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3단계 7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2. 운영원리

1) <3단계 7과정>의 운영원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 (1) 목표지향적이지 과정지향이 아니다.
- (2) 각 과정과 단계를 마칠때에는 반드시 확인과 평가를 실시한다.
- (3) 학원 S.F.C의 훈련과 교회 S.F.C의 훈련의 연계성을 인정한다.
- (4)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교재와 방법을 참고한다.
- (5) 성경공부만이 아니라 각 과정의 목표에 적합한 활동과 운동을 병행한다.
- (6) 각 과정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협력단체에 위임 교육을 할 수 있다.
- (7)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도모하도록 한다.
- (8) 과정이수 후에 전공과 관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2) <3단계 7과정>이 가지고 있는 운영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과정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고무적인 표현이며 운영원리이다. 과정지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운영원리인 것이다. 일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과정이나 일반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전문성의 한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정을 이수할 때 그 과정을 마친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진학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주일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목표지향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은 1년을 단계적인 기간으로 하여

17) 상계서, p.2.

18) 상계서, p.3.

재평가 없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말에 가서 Feed back을 통하여 그 이동으로 하여금 평가에 따라 다시 학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단계를 거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은 해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만 아주 사소한 차이를 둔 채 반복되는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아주 평이하게 되고 보다 우수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양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3단계 7과정〉은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과정지향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원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계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해야 한다. 과정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경험한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각 단계와 과정의 교재를 한 두권 익혀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의 성숙에 있어서 각 단계와 과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운동원들이 교재를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이 변화하게 해야 한다.¹⁹⁾

이것이 〈3단계 7과정〉이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적인 운영원리인 것이다.

(2) 과정과 단계를 마칠 때에는 반드시 평가와 확인을 실시한다.

이것은 〈3단계 7과정〉이 제1운영원리에서 보여준 목표 지향적인 운영원리의 또 다른 단계의 운영원리이다.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확인과 평가를 통하여 분명한 양육을 위한 운영원리이다. 이것은 교육학의 교육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을 치르고 있다.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지 테스트는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Feed back을 통하여 추구하여야 하는 교육의 목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양육을 위하여 S.F.C가 가지고 있는 〈3단계 7과정〉은 참으로 훌륭한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 과정의 성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하며, 교재를 바꾸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섬기

고 있는 알들을 바꾸어가면서라도 그 과정이나 단계를 반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²⁰⁾

(3) 학원 S.F.C의 훈련과 교회 S.F.C의 훈련의 연계성을 인정한다.

각 학원 선교단체들의 제자훈련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비록 지역 교회에서 꾸준히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회원이 되면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을 위하여 그 단체의 교과과정에 따라 훈련의 기초부터 새로이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많은 시간적인 낭비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을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운영이지만 좀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간의 상호 협력적인 교과과정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지금의 현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아예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기초부터 차례로 양육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점점을 통하여 대상에 맞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S.F.C의 〈3단계 7과정〉은 교회의 양육을 인정하면서 학원S.F.C가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에 따라 점검하여 그에 맞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S.F.C가 채택한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정신에 있어서 교회와 학원 사역의 연계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각 단계와 과정의 내용이 교회 생활과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훈련 과정을 설계했다. 분명한 것은 지역교회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 학원S.F.C에서 전혀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로 훈련을 받게 하지는 않는다.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확인과정을 통하여 훈련의 정도가 인정되면 학원S.F.C에서는 그 다음 단계나 과정에서부터 계속하도록 한다. 동시에 학원S.F.C를 통해서 받은 훈련이 지역교회에서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 봉사에 대해서도 1단계 1과정에서부터 다루고 있다.²¹⁾

또한 3단계인 6과정에서 바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운동원이지만 본인이 1단계 1과정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희망하면 그렇게 훈련받도록 허용되고 있다.

20) 상계서, p.4.

21) 상계서, p.4.

19) 상계서, p.3.

(4) 목표 성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양한 교재와 방법을 참고한다.

S.F.C.의 <3단계 7과정>의 목표는 교과과정이 명시한 인격을 갖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만 어떤 교재에 능숙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어떠한 교재를 통하여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알동이 운동원의 영적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를 택할 수 있고 또한 각 단계에 따라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²²⁾

각 학원선교단체의 양육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단계에 따른 단수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제한적인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교재를 사용함을 통하여 리더의 지도에 있어서 확실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 교재에만 얽매어 보다 폭넓은 양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3단계 7과정>은 과정에 따른 다양한 복수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교재들이 출판되어 있다. 각 교재들마다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출판되었기 때문에 <3단계 7과정>은 과정의 각 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목표에 따른 다양한 교재들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참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관들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교재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F.C.가 가지고 있는 <3단계 7과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5) 성경공부만이 아니라 각 과정의 목표에 적합한 활동과 운동을 병행한다.

(6) 과정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협력단체에 위임 교육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선교단체와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제의 세미나도 있다. 이러한 전문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와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본 교과과정의 내용과 같다면 그 전문 교육기관이나 세미나에 위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본 교과과정이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7)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도모하도록 한다.

22) 상계서, p.4.

<3단계 7과정>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3단계 7과정>이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3단계 7과정>이 담고 있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본 <3단계 7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알동에게 <3단계 7과정>을 다 이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전문 영역과 관심에 따라 자기 개발을 도모하도록 독려하며 열어놓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주제와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전공과 관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학생신앙운동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원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개혁주의를 어떻게 전문 영역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전문 영역을 허락하셨다는 고백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전문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차 전문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 전공과 관심에 따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림으로 본 <3단계 7과정>

<3단계 7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도표화시키면 다음<그림4>과 같다.²³⁾

단계	과 정	목 표	평 가 방 법	지역교회	비고
1 단 계	1과정 구원의 확신	복음의 핵심을 소개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간증문, 설문지, 관찰, 상담	교회출석	작은모임
	2과정 예배와 교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 경건생활과 교회생활과 SFC운동에 동참한다.	QT노트, 기도일지, 교회지도자에 게 자문을 구한다.	학습교인	큰모임
진단과 평가를 실시한다.					

23) 상계서, p.6.

단계	과정	목표	평가방법	지역교회	비고
2 단 계	3과정 성품과 생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을 배우고 익힌다.	QT노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질문,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간증문		
	4과정 복음전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	전도학교 이수, 전도계획서, 보고서, 간증문, 전도실습	세례교인	예비알들
	5과정 제자양육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양육한다.	영혼에 대한 열정 점검, 작은모임 인도 실습, 상담	교사	양육알들
	진단과 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와 분리-양육알들로 세움-알들현약식)				
3 단 계	6과정 헌신과 섬김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섬긴다. (교회, S.F.C)	주제토론, 문제분석, 과제물, 시간과 재정사용, 질문지		위원알들
	7과정 개혁과 도전	삶의 모든 영역속에서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한다.	비전발표, 영역별 과제물, 주제발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한다. (3-7교과과정 수료자들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평가, 수료예배)				

〈그림4〉

4. 교과과정의 개요 및 사용지침

본 3단계 7과정의 교과과정은 작은 모임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서로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시켜 운동원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임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원 S.F.C.에서는 작은 모임 외에도 큰 모임, 각종 수련회, 자체 및 연합 행사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S.F.C.가 지향하는 바, 학원과 국가, 사회,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와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본 교과과정은 크게 3단계로 작게는 7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로 증거하고 섬기며, 맡겨진 위치에서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졸업 후 다가 올 사회의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따라 짜여져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도표에서 보듯이 첫 두 과정은 I단계, 그 다음은 세 과정은 II단계, 마지막 두 과정은 III단계이다.²⁴⁾

각 단계를 마치는 부분에는 평가가 있어서, 그 단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 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단계의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면 운동원으로 불리며, 2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면 알들이라고 부른다.

각 과정별로 과정의 개요, 과정의 목표, 그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중요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사용 가능한 서적과 자료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서적들은 알들이 운동원의 수준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적에는 *표시를 하여 두었다.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을 평가해 본 결과 성취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보충과정을 통하여 성취시키든지,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면 다시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과정별 구분에 대해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대개 1,2과정을 1학년 첫 학기에 마치고, 3,4,5과정을 각각 한 학기씩 하게 될 경우 2학년을 마치면 알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양육된 알들은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S.F.C.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S.F.C.위원으로, 조장으로, 또는 여러 분야의 지도자로 사역하면서 6,7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이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각 과정별 평가문항으로 확인하여 과정 이수를 면제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5. 〈3단계 7과정〉 각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

이제 각 단계별 과정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F.C.의 교과과정은 1,2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1단계로, 3,4,5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2단계로, 6,7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3단계 7과정〉의 교과과정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²⁵⁾

24) 상계서, p.8.

25) 상계서, P11-P62.

1) 제1과정 ▶ 구원의 확신

(1) 개요 - 1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앞에서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과정이다.

(2) 목표 - 복음의 핵심을 소개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3) 방법 - 일대일이나 작은 모임, 복음초청집회

(4) 내용 - ① 하나님 ② 인간과 죄 ③ 예수그리스도 ④ 회개와 믿음
⑤ 성장

2) 제2과정 ▶ 예배와 교제

(1) 개요 - 본 과정은 1과정에 이어 1학년 1학기에 시행한다. 1과정을 마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에게 교회생활과 개인경건생활을 가르친다. 이 과정을 통해 새신자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며, 기존신자는 관습적 신앙에서 탈피하여 예배의 기쁨과 공동체적 교제를 회복하게 한다. 내용 중 심화과정(내용 2)은 선택이다.

(2) 목표 -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생활과 개인 경건생활을 하고 S.F.C.운동에 동참한다.

(3) 방법 - 일대일, 소그룹, 큰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한다.

(4) 내용 - ① 새로운 피조물 ② 생명의 양식-성경 ③ 생명의 호흡-기도
④ 날마다 주님과 QT ⑤ 경배와 찬양 ⑥ 교회 생활
⑦ 학원S.F.C.

3) 제3과정 ▶ 성품과 생활

(1) 개요 - 1,2과정을 마친자는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한다. 본 과정은 2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가치관의 잘못된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고쳐 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팔복, 열매, 십계명, 야고보서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간사와 알들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진행

(2) 목표 - S.F.C.운동원이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을 배우고 익힌다.

(3) 방법 - 작은 모임. 본 과정을 진행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학기중에는 총 10회 정도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강조를 두고 있는 까닭에 개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감문이나 간증문을 모임시마다 발표한다. 또한 주제에 따라 적절한 글을 읽고 발표하고 토의해 볼 수도 있다. 큰 모임이나 신앙강좌등의 강의, 그리고 간사나 알들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4) 내용 - ① 새로운 성품과 생활의 헌신

② 공동체 생활을 위한 성품과 생활개발

③ 십계명을 통한 성품과 생활개발

④ 야고보서를 통한 성품과 생활개발

⑤ 예수님의 팔복을 통한 성품과 생활개발1

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성품과 생활개발1

4) 제4과정 ▶ 복음전도

(1) 개요 - 본 과정은 정규적으로 3-7과정 훈련을 받는 경우 1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훈련으로 예비알들 과정이다. 1-2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훈련을 한다. 개혁주의적 복음화의 개념을 배우고 개인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익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자가 된다.

(2) 목표 -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배워서 전도한다.

(3) 방법 - 작은모임, 큰모임, 특별히 복음전도 훈련은 집중기간(8일간)의 임상 훈련이 필요하다. ① 노방전도, 안드레 미팅, 학신의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에서 이런 전도행사를 가질 때 적절한 임무를 준다. 주말의 무교회 지역 전도나 방학 중에 순례전도를 하도록 한다. ② 대화식 개인 전도의 훈련은 32시간정도(8일간) 집중훈련 ③ 훈련의 강도는 소책자 훈련 > 노방전도 훈련 > 대화식 개인전도훈련의 순이다.

(4) 내용 - ① 복음개요 ② 소책자 전도 훈련 ③ 노방전도를 위한 훈련

④ 대화식 개인전도 훈련 ⑤ 전도성경공부 인도법

⑥ 개혁주의적 복음전도

5) 제5과정 ▶ 제자양육

(1) 개요 - 본 과정에서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작은모임) 속에서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예비알들로써 마지막 단계가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원의 현장과 사회 속에서의 개혁신앙인에 대해 훈련하게 될 6,7과정 이수를 위한 성경적 기본원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13주 정도가 필요하며, 2학년 2학기.

(2) 목표 - 작은 모임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다.

(3) 방법 - 작은 모임, 큰 모임, 알들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한다.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책이나 글들을 읽고 토의한다.

작은 모임 참관 및 실습

(4) 내용 - ① 제자의 부르심 ② 알들론 ③ 양육의 실제 ④ 개인성경공부

⑤ 소그룹 인도법 ⑥ 상담법

6) 제6과정 ▶ 헌신과 섬김

(1) 개요 - 5과정 훈련을 받은(대체로 대학3학년) 알들, 운동원을 대상으로 복음의 관심자가 아닌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되도록 훈련한다. 자신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적 소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가진다. 특히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을 배워 S.F.C와 학원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안에서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또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훈련과정이다.

(2) 목표 - 헌신의 훈련을 통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한다.

(3) 방법 - 작은 모임, 큰 모임, P.B.S 와 개인 경건 시간(Q.T.),

관심영역별 모임, 학원별 모임, 선배, 교수, 간사, 목회자와 상담

(4) 내용 - ① 개혁주의의 이해 ② 하나님나라 ③기독교 세계관 ④학생운동사

⑤ 대학문화 연구 ⑥ 신앙과 전공과목 ⑦지도자훈련 ⑧ 자기 관리

⑨ 은사발견법

7) 제7과정 ▶ 개혁과 도전

(1) 개요 - 대학의 4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1년 동안 진행될 본 과정

에서는, 앞에서 마친 제6과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개인 경건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하여 졸업 후에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심영역별로 훈련하고 헌신하게 한다. 특별히 국내 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 대한 소양을 길러준과 함께 그 곳에서의 일터를 각자가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2) 목표 -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삶에 대해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실천적 개혁신앙인이 된다.

(3) 방법 - 작은 모임, 방학이나 단기간의 관심영역별 모임, 훈련학교, 졸업생 수련회, 성경공부와 강의 또는 독서 후 토의법을 병행한다. 성경말씀과 독서 및 토론의 일치를 위해 반드시 관련 성경말씀을 읽고 사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수나 선배와의 만남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4) 내용 - ① 이성교제, 결혼과 가정 ② 직업과 경제생활 ③ 사회참여

④교회생활 ⑤선교(세계의 복음화) ⑥ 대학원 진학 ⑦ 동문운동

IV. 타 선교단체의 교과과정

1. 한국 대학생선교회(C.C.C.) 교과과정

C.C.C.의 양육 프로그램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기초육성이수과목, 소순장 후보 이수과목, 소순장 이수과목, 중 순장 이수과목, 대순장 이수과목이 그것이다. 각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학년에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내용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전도훈련-사영리, 리더훈련, 순례전도, 금식수련회, 소그룹훈련-10단계 성경교재, 강의, 필독서 등이다.

C.C.C.의 양육 프로그램(전체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기초양육 이수과목(1학년)

기 초 양 육 이 수 과 목 1 학 년	교 육 과 정	비 고
	사영리	
	사영리 소개 끝마무리	
	성령소책자	
	새생활시리즈(1-6)	
	T.C.(1-4, 8)	
	T.B.S. 입문편(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초급 L.T.C.	
	4복음서 읽기	
	성구암송(T.C.1-4, 8)	
	사영리 전도 5회 이상	
	<필독서>	
	사랑하는 형에게	
	허무냐 신이나	
	예수와 지성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I.V.P.)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그림5>

2) 1학년 소순장 후보 이수과목

소 순 장 후 보 이 수 과 목 1 학 년	교 육 과 정	비 고
	초급 L.T.C.(2회)	
	중급 L.T.C.(2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생활(1-6)	
	T.C.(5-7, 9)	
	Q.T.훈련 6시간	
	T.B.S. 1-3	
	C.C.C.의 역사와 철학	
	성서적 헌금 훈련(4시간)	
	순론노트(1-5)	
	요한복음개론(C.C.C.)	
	리트릿10회 이상 참가	
	순장수련회 1회 이상	
	신약성경통독 1회	
	성구암송(T.C. 5-7, 9, T.B.S.1-3)	
	신앙고백서에 서명	
	개인전도 실천 20회 이상	
	<필독서>	
	기독교의 기본진리	
	내가 믿는 기독교(CS루이스)	
	예수님의 부활(마이클 그린)	
	권위(로이드 존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는 이것을 믿는다(필리틀)	

<그림6>

3) 2학년 소순장 이수과목 <그림7>

		교육과정	비고
소순장		사영리 들어본 사람들 · 사영리 다른 방법	
		사영리 질문과 반대에 대처하기	
		전도할때에 논점을 분명히 하기	
		순종과 기도	
		바울의 육성방법	
		대표기도의 비망록	
		순원양육의 원리 · 순원양육하기(실천)	
		중급LTC(2회) · 고급L.T.C.(I)	
		T.B.S.(4-8) · A.D.G.(7-12)	
		순원노트(6-11) · 시간관리(4시간)	
이수과목		건강유지법(4시간) · 학과공부(4시간)	
		변증메시지(1-8)	
		성서조감	
		I.B.S.참석 1회 이상	
		수련회 2회 이상 참석	
		순례전도 · 금식수련회	
		순장수련회 2회 이상 참석	
		수련회 소순장 봉사	
		권위에 대한 태도	
		인물공부(아브라함, 바울)	
2학년		삶의 목적	
		신구약통독 1회 · 성구암송(T.B.S. 4-8)	
		Q.T. 노트 기록(매일성경)	
		개인전도 실천 30회	
		개인생활관리표 작성	
		<필독서>	
		성경연구입문(존 스토틀)	
		영적혁명(빌 브라일)	
		초대교회의 전도(마이클 그린)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I.V.P.)	
	예수칼럼(김준곤)		
	능력있는 삶과 성령(빌 브라일)		
	주님과 나만의 시간(C.C.C.)		

4) 중순장 이수과목(3학년)

		교육과정	비고
중순장		소순장 양육하기(실천)	
		고급L.T.C.(II)	
		초급L.T.C. 인도법 훈련	
		팀미팅 인도법훈련	
		영화상영훈련	
		A.D.G.(13-20) · T.B.S.(9-10)	
		개인성경연구법 훈련	
		소그룹 성경연구 인도법	
		이성교제 · 크리스찬의 예절 · 가정,예절생활	
		I.B.S. 구약개론	
이수과목		사도행전 · 소선지서, 바울서신	
		수련회 교육부장봉사	
		순례전도팀 리더	
		불신자와 친구관계를 시작	
		권위를 행사하는 법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법 배우기	
		승법번식의 정의 철학	
		미혼기간의 가치	
		이단종교 비판	
3학년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법	
		사영리 배후 신학	
		선교헌금	
		개인전도 20회 · 그룹전도 2회	
		<필독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IVP)	
		훈련으로 되는 제자(헨릭슨)	
		다이나믹한 성경연구법(리차드위렌)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IVP)	
		마르크스주의 도전과 크리스찬의 응전	
	주님의 전도계획(로버트 쿨만)		

<그림8>

5) 대순장 이수과목(4학년) <그림9>

대 순 장	교 육 과 정		비 고	
	이 수 과 목	지도자론·영적운동론·경영관리법		
중급반 L.T.C.인도법 훈련				
College Life 인도법·초청간연회 인도법				
L.G.S. (1-5)·고급L.T.C.(II)				
토의 학습지침(1-5)				
상담훈련(12시간)				
전도실습(중순장과 함께)				
수련회 대순장 봉사				
완전이웃 복음화전략				
총동원 전략노트				
4 학 년		메네지먼트 (관리법)		
		기독교회사		
직장생활을 위한 안내(성공적인 직장생활)				
나사렛 형제들 지침				
성서적 상담법				
기본 메시지를 준비하는 법				
주제별 성경공부 (결혼,인간양심,자유,독신,부부,사회생활)				
성서연구 (목회서신,히브리서,고전후,살전후,벧전후,빌,엡)				
인물별성서연구 (예레미야, 다니엘,이사야, 에스겔, 욥)				
<필독서>				
현대의 기독교 선교(존 스토티)				
영원에서 영원까지(에릭사우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올리버 버클리)				
비뚤어진 성경해석(제임스 사이어)				
당신의 직업 생존이나 만족이나(네비)				
기독교 현대사상(성광문화사)				
기독교와 문화(총신대 출판부)				
평신도를 깨운다(옥환음)				
토지와 자유(토레이)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C.C.C.가 진행하고 있는 <10단계성경교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단계성경교재>는 모두 입문편과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내 용
입문편	예수 그리스도이 유일성
1단계	그리스도인의 출발
2단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활
3단계	그리스도인과 성령
4단계	그리스도인과 기도
5단계	그리스도인과 성경
6단계	그리스도인과 순종
7단계	그리스도인과 전도
8단계	그리스도인과 청지기직
9단계	구약성경의 중심점
10단계	신약성경의 중심점

<그림10>

1) 입문편 : 예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공부한다.

2) 1단계 : 그리스도인의 출발

1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 면으로 다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생활, 신앙 성장의 원리들,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 등이다.

3) 2단계 : 그리스도인과 풍성한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내용들인데,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 곧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것이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죄와 유희와 생활의 무장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풍성한 생활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4) 3단계 : 그리스도인과 성령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논의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이신 성령에 대한 논의이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개인의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3단계 공부를 통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힘 있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5) 4단계 : 그리스도인과 기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로 인도해 준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경건의 시간과 관련된 제안들을 제시한다. 또한 기도의 목적, 특권, 절차 및 기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논의한다.

6) 5단계 : 그리스도인과 성경

성경 자체의 분석에 눈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구성과 저자와 중심되는 주제 및 인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돕는 성경의 능력을 배우게 된다. 또 우리는 성경 공부의 방법들과 그러한 공부로부터 알게 되는 영적인 필요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7) 6단계 : 그리스도인과 순종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일과 개인의 순결, 평안, 두려움, 혐의 사용과 불성실의 문제등을 토의한다.

8) 7단계 : 그리스도인과 전도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또한 개인 간증의 가치와 위치를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식과 사영리의 전제로 끝을 맺고 있다.

9) 8단계 : 그리스도인과 청지기직

청지기직을 논의한다. 모든 개인과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소유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물질은 물론 자신의 영적, 육적인 면에서의 헌신을 논의한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성격과 책임을 배우게 된다.

10) 9단계 : 구약성경의 주안점

구약 성경의 중심점을 간략하게 개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 메시아의 약속, 아브라함, 모세, 율법과 은혜, 여호수아 구원, 다윗과 용서, 엘리야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11) 10단계 : 신약성경의 주안점

신약성경의 중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경의 각 권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의 간단한 개관을 제시한다.

2. 기독교사회(I.V.F.) 교과과정

본 교과과정은 현재 부산지역 I.V.F.가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인 교과과정이 짜여져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I.V.F.의 교과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체훈련과 시기 -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1) 제자도 훈련 - 1학년 여름학기(1주일)
- 2) 성경학교 - 1학년 겨울학기(1주일)
- 3) 국내MEET/ 해외 MEET - 2학년 여름학기(해외단기선교훈련)
- 4) 지도자훈련 - 2학년 겨울학기(2주일)
- 5) 해외선교훈련 - 3,4학년 여름, 겨울학기
- 6) 평생동역자수련회 - 3학년 겨울학기(4박5일)

2. 각 훈련과정의 목적과 내용

1) 제자도훈련

- (1)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과 헌신(제자됨)
 - 멤버로서의 IVF 이해와 헌신(멤버십)
 - 공동체의식 체화(공동체성)
- (2) 내용 - 제자됨 / 구원론, PBS, DPM, 강해, 전도
 - 멤버십 / IVF 역사, 12대 정신, 캠퍼스 비전
 - 공동체성 / 공동체 세우기(공동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구조를 짚어준다.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일대일), 조별등반 혹은 공동체놀이
 - * 제자도가 강화될 때 멤버십이 강화된다.

2) 성경학교

- (1) 목적 - 복음주의 신학정립을 위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
 - 평생 성경연구자로서의 역량 강화
- (2) 목표 - 성경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3) 중요성
 - 현대의 혼돈스런 성경관 가운데서 올바른 성경관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 I.V.F. 정신의 근거를 확인한다. (복음주의의 분수령이 성경이라는 철학)
 - 1학년 시기에 성경에 관한 관점을 확립한다.
- (4) 내용
 - 올바른 성경이해 / 성경관(복음주의 신학의 정신), 신구약 개론, 성경해석의 원리, 교회사(역사적 교회가 성경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를 이해)

- 평생 성경연구자 / 사본식 성경연구(성경연구의 기쁨을 맛본다.)
- 기타 / 성경과 소그룹, 교회와 선교단체

3) 지도자 훈련

- (1) 목적 - 학생지도자로서의 지도력 강화
 - 복음주의 신학의 이해
- (2) 내용
 - 지도력 강화 / 전체 지부운동 전략, 기독교적 리더쉽, 상담이론 (캠퍼스 운동 경험이 교회나 사회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
 - 복음주의 /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학생운동
 - 기타 / 전도 워크샵, 소그룹 운영의 실제, 연구와 자료활용, 제자훈련
 - P.B.S. / G.B.S. 만들기, 설교 만들기

4) 해외선교훈련

- (1) 목적 - 선교의 비전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선교관을 정립한다.
 - 선교 현장 경험을 통해 선교에 헌신하게 한다.
- (2) 내용 - "선교한국"에 위탁교육
 - 소수 단기선교훈련, MEET,

5) 평생동역자 수련회

- (1) 목적 - 학사로서 준비
 - 동역자간의 친밀한 유대강화

3. 단계별 강의 목표

1) 개인성경연구

- (1) 제자도 훈련 - 귀납적 성경연구의 방법을 정석대로 가르친다. (관찰을 중심으로)
 - 성경을 보는 눈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바꾼다.
 - 본문을 복음서가 좋다.
- (2) 성경학교 - 성경연구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한다.

(사본식 성경연구를 통해)

(3) 지도자 훈련

- 귀납적 성경연구를 심화한다.
- 활용법을 배운다.(성경공부 교재 만들기, 메시지 작성)
- 본문은 디모데후서가 좋다.

2) 소그룹

- (1) 성경학교 -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소그룹의 멤버로서의 역할과 생활을 가르친다.
- (2)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인도자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게 한다.
 - 소그룹 운영의 실재를 가르친다.

3) 운동론

(1) 제자도 훈련

- I.V.F. 역사 / 운동의 시초, 세계적 역사, 현대의 동향과 영향력, 비전과 전수등에 역점을 두어 강의한다. 한국 역사를 다룰시 야사(野史)처럼 되지 않게 한다.
- 12대 정신 / 정신에 의한 운동의 성과들을 소개한다.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임을 강조한다.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한다.
- 캠퍼스 비전 / 사역의 장인 캠퍼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사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한다.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2) 성경학교

- 교회와 선교단체 / 정체성 이해와 협력 사역의 이해, 교회와 선교단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의 존재론적 우선권, IVF의 사역적·전략적·단계적 우선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전체 지부운동 전략 / 집짓기, 구조등에 대해. 구조의 check point 확인, 학기 변화와 학기 mechanism.
- 제자훈련 / 제자훈련의 중요성 인식, IVF. 구조속에서의 제자훈련에 대한 이해, 제자훈련 과정의 의미를 파악, 구조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제자훈련으로 - 개인적으로 해야 될 제자훈련

4) 강해

제자도 훈련, 성경학교, 지도자 훈련에 따른 특정 내용, 수준을 구분하거나 규정짓지는 않는다.

V. 신학적 조명

각 학원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분석,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각 교과과정에 따른 신학적인 조명을 통하여 각각의 교과과정들이 어떤 신학적인 토대위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체계위에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학적인 조명이라 할 때는 교의학적, 주경신학적, 봉사신학적,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교과과정속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교단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에 의하여 세우신 기관이다. 특별한 사명이라 함은 전도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등이다. 교회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균형있는 사역을 위하여 교회의 병행기관으로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선교단체는 반드시 지역교회와의 상호 관계속에서 그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학원선교단체는 그 무엇보다도 교과과정에서 교회론에 대한 바르고도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고, 선교론적인 바른 교육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신학전반에 걸쳐서 조명하며 분석을 할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론적, 선교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1. 교이론적 조명 -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선교단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 선교단체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천신학적인 것이 교과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의학적인 균형이 없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 벗어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교과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의론적으로 바른 기반 위에서 있지 않거나 신학전반에 걸쳐서 균형있게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못된다. 이제 교의론적으로 조명함에 있어서 7가지로 나누어서 균형성을 살펴보면,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교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1) S.F.C.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4년 동안 훈련받게 되는 교과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신론·교회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에 관계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령론·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교의학적으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교과과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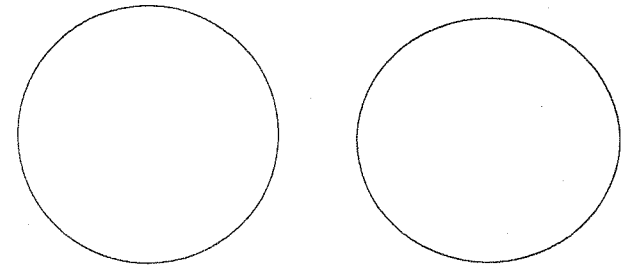
신론·교회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많이 미흡함을 발견하게 된다. 각각의 신학적인 체계성과 그 신학적인 배경에 기인한 적용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다른 학원선교단체에 비하여 그 내용이 다소 깊고 넓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개혁주의적인 체계를 잡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C.C.C.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신론·교회론·성령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에 관계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론·교회론·성령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에 관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전개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적인 전개와 하나님의 속성등 개혁주의적인 신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교회론을 살펴보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혁

주의적이지 못하고 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타 학원선교단체의 교과과정에 비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만 역시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인 뒷받침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인간론·구원론·기독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 그림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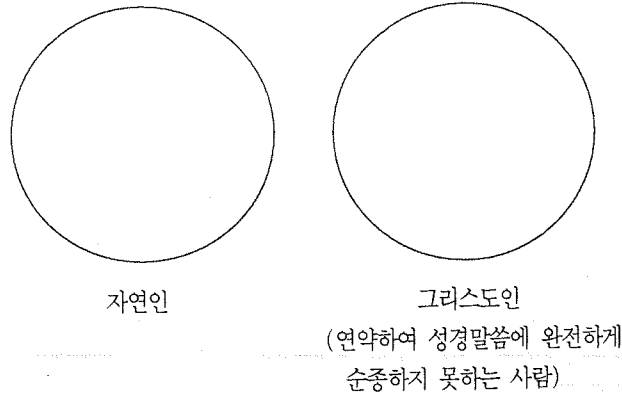
<그림11>

인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나타냄에 있어서 <그림11>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두 가지의 형태로 양분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법에 따라 육신을 좇아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을 좇아 살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지만 항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인간속에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옛 습성에 따라 행하다보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항상 성령의 법을 좇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 결단과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하는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C.C.C.의 그림에 의하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며, 질서가 없이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셨지만 죄성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바른 표현은 아래 <그림12>과 같이 수정해야 함이 옳다.



<그림12>

3) I.V.F.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I.V.F.에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대학 4년 과정에 따라 전체적인 제자훈련에 대하여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S.F.C.의 <3단계 7과정>이나 C.C.C.의 <10단계 성경교재> 같은 교과과정이 없다. 따라서 신론·교회론·성령론·인간론·기독론·구원론·종말론에 따라 신학적인 조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역 I.V.F.가 정리한 교과과정에 따라 교의론적으로 조명해 볼 때 신론·교회론·성령론·인간론·기독론·구원론·종말론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종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에는 세미나나 수련회, 각종 훈련과정에 있어서 강의중에 언급하며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I.V.F.의 교과과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I.V.F.의 중대한 결점이라고 진단된다. 교의론적으로 균형있는 훈련이 없다면 I.V.F.에 의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편협적인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년 동안의 훈련과정을 통하여 I.V.F.의 목적에 따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여 내는 것에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 교회론적 조명

개혁주의적인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모으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정의내려야 한다. 또한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교회의 속성과 은혜의 방편들, 교회의 유형 등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교회론에 입각하여 각 학원선교단체의 교과과정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1) S.F.C.의 교과과정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을 살펴보면, 제2과정의 여섯번째 항목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교회생활의 필연성과 유익, 교회안에서의 인간관계, 교회의 4가지 사역(예배, 교육, 선교, 교제), 은사론, 교회직분론, 교회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7과정의 네번째 항목에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론적으로 조명해 볼 때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론에 입각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S.F.C.의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회관을 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크다. 물론 S.F.C.가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교단중심의 학원선교단체라는 특징이 있지만 학원선교단체로서 그 교과과정에 개혁주의적인 교회론을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2) C.C.C.의 교과과정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을 살펴보면, 입문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단계의 제6과와 제1단계 “그리스도인의 출발” 단계의 제6과에 나타나고 있다. 입문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단계의 제6과에서는 “교회의 두가지 유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1단계 “그리스도인의 출발” 단계의 제6과에서는 역시 교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교회의 의식,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C.C.C.의 교과과정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 역시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를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양분함에 있어서 유형의 교회는 예배와 교제와 교육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고, 무형의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양분함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나타내고 있다. 유해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가시적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불가시적 교회란 하늘에 있거나 또는 천국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는 배경에는 고대의 플라톤 사상과 중세의 실재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원론의 관점에서 나온 종교적 이상주의의 편견이 저변에 깔려있으며, 가현설적인 교회론이며 현실을 무시하고 도파하는 그릇된 구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교회란 무엇보다도 불가시적인 실체가 아니며 불가시성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시적 교회라는 말은 용어상 모순이 되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다.²⁶⁾ 그 이유로 말씀, 성례와 같은 교회의 표지들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불가시적인 교회란 북한이나 중국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지만 가시화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말하면서 '표지를 가지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이다'고 결론 맺고 있다.²⁷⁾

이러한 개혁주의적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C.C.C.가 주장하고 있는 교회론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선교론적 조명

선교단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선교 파트이다. 교과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역이 있다면 바로 선교적인 영역이다.

1) S.F.C.의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선교적인 면을 살펴보면, 전체 7과정중에서 한 과정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제4과정 "복음 전도"과정 전체가 전도에 대한 내용이다.

2) C.C.C.의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선교적인 면을 살펴보면, 전체 10단계의 단계중에서 제7단계 "그리스도인과 전도" 단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3) I.V.F.의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선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 3,4학년이 해당되는 회원은 여름과 겨울 방학중에 해외단기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외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선교의 비전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선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교한국"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선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 선교단체의 선교에 대한 교과과정을 선교론적으로 조명해 보면, 먼저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교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과 몇 가지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도훈련을 받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선교(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교육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내용은 학교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올바른 선교적 훈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교 전반에 걸친 교과과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국내 선교를 비롯하여 국외 선교의 영역까지 모든 선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겠다.

VI. 결론

현재 C.C.C.와 I.V.F.와 S.F.C.의 세 학원선교단체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해 볼 때 선교단체로서의 목적에 치중된 교과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활적인 면에 치중된 교과과정인 것이다. 또한 각 과정과 단계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교과과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도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학원선교단체들이 신학적인 고려 없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와의 상호 협력관계에 대한 안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각 선교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사역에 치중된 나머지 편중된 사역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하여 열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선교단체로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중심의 사역에 대하여 심각한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26)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563.

27)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562.

21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와 학원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신학교와 지역교회와 학원선교단체들이 상호 협력관계 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역을 고집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전문 사역만을 고집한다면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선교단체는 계속해서 기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셨다. 지난 100여년을 거처오면서 신학교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 전문적인 사역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 전문 영역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세 기관이 이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실로 엄청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1. 지역교회와 학원선교단체와 신학교 사이의 상호 협력방안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학원선교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동아리로 인정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을 학원복음화를 위한 기초로 삼아서 지역교회와 신학교와 학원선교단체가 상호 협력을 한다면 학원복음화에 있어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학원선교단체는 학교에서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적합한 면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는 재정적인 부족, 전문 지도자의 부재, 교회와의 단절 등이 있다.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며 사역이다. 교회가 대학교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학원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고, 학원선교단체가 교회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개방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학원선교단체의 간사들을 교회로 영입하여 교육기관의 간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신학교는 학원선교단체의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신학적으로 조명하여 바른 신학교육과 신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학생시절에 훈련받는 바른 신학과 신앙지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제 바른 신학에 대한 학습은 목회를 할 목

회자를 위한 신학 수업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신학교의 문도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원선교단체와 협력하여 학원선교단체의 교과과정중에 신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강좌가 있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기초적인 양육 과정중에서 신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과 대안제시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은 과정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라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과정에 따라 훈련받음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다면 교재를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교재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안 많은 기관을 통하여 준비해 오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안목이다.

1) 교과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은 신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의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이러한 부족한 신학적인 면들을 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론과 종말론의 영역이다. 개혁주의적인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첨가된다면 아주 훌륭한 교과과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은 그 교과과정이 한 학기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과과정인데 몇 과정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좀 방대함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면들도 잘 고려되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회와의 상호 협력에 있어서 교과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은 대학교의 실정에 국한된 교과과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교회의 대학부를 비롯하여 주일학교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소그룹 중심으로 조장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받으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각 교과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조장)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일학교(중등부·고등부)와의 연계성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

참고문헌

학생신앙운동본부, 「학생신앙운동ABC」, 서울:학생신앙운동출판부, 1996.
 학생신앙운동본부, 「III-7 교과과정」, 서울:학생신앙운동출판부, 1993.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한국대학생선교회, 「10단계 성경교재」, 서울:순출판사, 1992.
 존 칼빈, 「기독교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7.
 김득용, 「기독교교육원론」,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1.
 강창근,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고려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4.
 정필용, 「제자훈련의 성경적 원리와 교육방법」. (고려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아이디스 V. 컬리, 「커리큘럼의 계획과 선택」,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BHS, BHQ, HUB의 사본학적 활용원리에 관한 연구

배현철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우리는 흔히 신학적 작업이나 주석의 출발점으로서의 성경 본문이 구약에 있어서는 히브리어(일부는 아람어)로 된 성경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언어로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우리는 단일의 원본이 아닌 다양한 사본들 앞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그중 어떤 사본을 선택해야 옳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아람어) 성경은 BHS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 critical apparatus의 개정을 거쳐 BHQ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BHS나 BHQ는 본문으로서 B19a라고 표현되는 Leningradensis 사본을 제공하며 본문 하단에는 critical apparatus가 제시된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교에서는 Aleppo codex에 근거한 HUB(Hebrew Universary Bible)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 BHS에서 BHQ로 판을 거듭하게 되는 이유는 critical apparatus의 개정작업 때문이며 HUB에서는 BHS 및 BHQ에 비해 보다 나은 critical apparatus가 제공될 전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같은 critical apparatus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 왜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답들은 신학적인 것이며 기존의 많은 대답들이 신학적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존의 여러가지 대답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이 위의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